불로 옷을 태워도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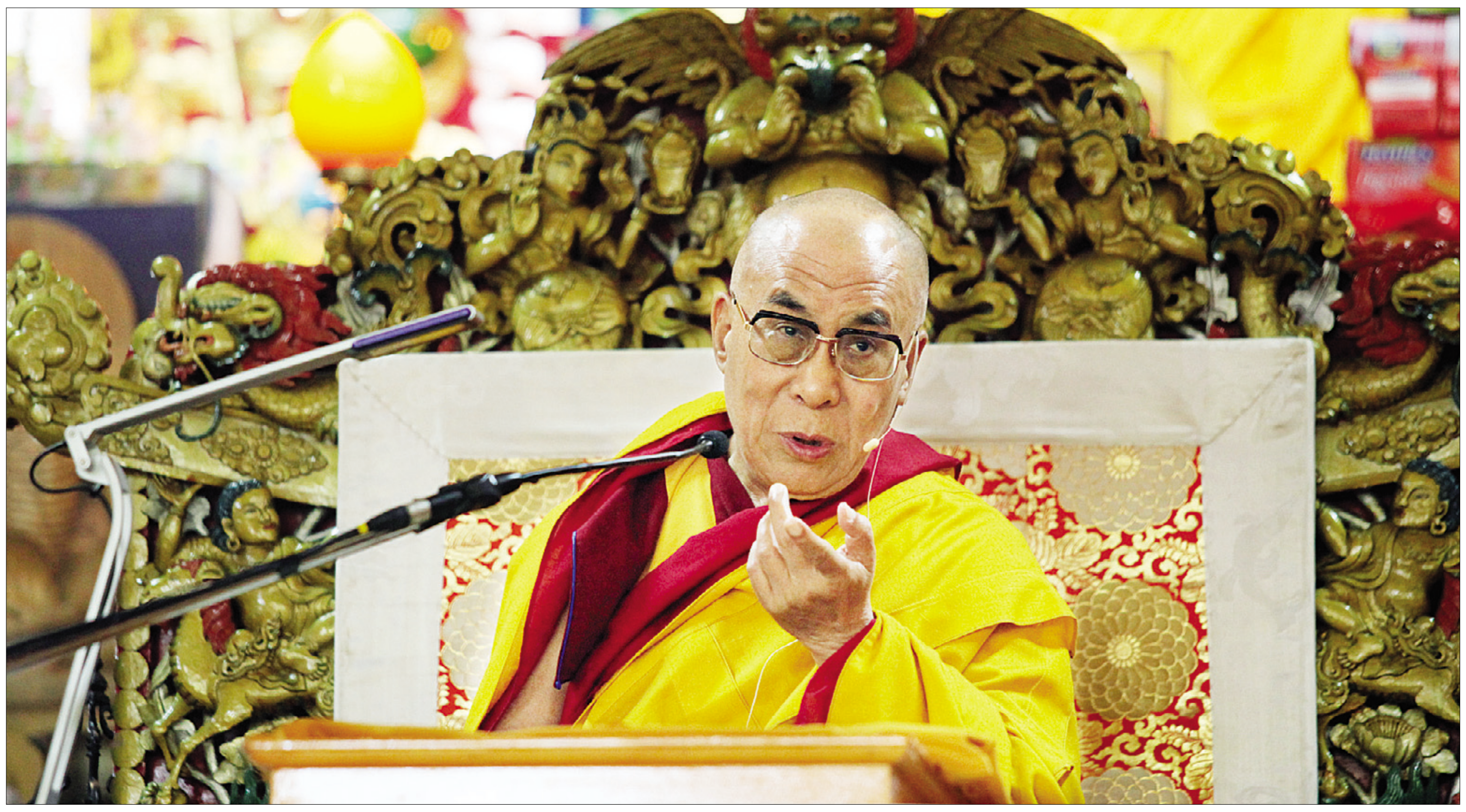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달라이 라마 특별법회

한국인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특별법회가 9월 15~17일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대만, 유럽 등에서 온 3500여 불자들이 동참, 예불을 시작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한 후 하루 두 차례씩 3일간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경청했다.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을 9년간 이어오고 있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은 법회를 열며 “이곳에는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 나 스스로가 재발심의 계기가 되고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과 존자님을 뵈면서 그분을 통해 내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다. 참석하신 신도님들이 바른 법에 들어서 모두가 번뇌를 버리고 실제 이익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입보리행론> <보리도등론> 등을 설법해 온 달라이 라마는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대다수의 불자를 감안해 기초적인 불교 지식과 함께 대승의 진정한 보리심을 발현하는 용수 보살의 저서 <보리심석(菩提心釋)>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보리심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이유를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

선지식을 찾아서
달라이 라마



부처님 초전법륜(初轉法輪)의 해설서인 용수보살의 저서 <보리심석>은 본래 인간의 마음은 청정하며 밀교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인간 마음의 허물을 없애는 것을 관건으로 합니다. 특히 가장 미세한 의식 상태를 현현시키는 것이 밀교의 수행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설하고 듣는데 있어서 근기(根機)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법자와 법을 듣는 이 모두 절실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유지하고 받들겠다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고 제자 역시 신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멸성제(滅聖諦) 즉, 번뇌의 허물에서 벗어난 열반을 이루기 위해 불교 수행을 합니다. 비폭력으로 선취에 들 수 있지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명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하며 일어나는 지혜에는 사해(思解)에 의해 일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문해(聞解)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습해서 일어나는 지혜를 수해(修解)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성(空性)을 사유함에 있어서 확신을 스스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많이 듣고 공부하는 문(聞)을 시작으로 사수(思修)의 과정은 반드시 인과의 관계로 성립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 자리에서 법을 듣기 위해 모인 동기를 바로 세우십시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번뇌이고 그로 인해 아집(我執)이 생깁니다. 나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꿈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면 우리는 아견의 반대되는 생각인 무아(無我)와 아집의 반대된 생각인 보리심(菩提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이 용수 보살의 <보리심석>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무아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이타심을 키워 나간다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행복은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보리심석>은 무아의 지견을 이야기 합니다. 부처님의 경장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오온(五蘊: 생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즉, 色受想行識)에 의지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무아(人無我)입니다. 경량부에서 이야기하는 인무아는 몸과 마음을 좌지우지 하는 주체로서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아(我)’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에서는 인무아를 향유하는 존재자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점차적으로 수행하면 ‘아’의 집착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식학파와 중관에 있어 인무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법무아(法無我)입니다. 아의 집착을 없앨 때는 인무아이지만 반대로 향유하는 주체 대상이 아직 남아있음으로 법아의 집착은 끊어집니다. 물론 인무아를 수행했을 때 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인식하는 대상과 주체는 상호 의존적으로 안립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自性)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언어 또한 무자성(無自性)인 것입니다.

마음은 환(幻: 환상)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眼識)은 안근(眼根)과 대상 경계가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실체인양 느껴지지만 실상은 이것이라고 규명하려 할 때 결코 실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롯한 모든 제법은 상호의존에 의해 존재하니 본래 자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체의 희론이 적멸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상이 마치 진실인양 여겨집니다.

어떤 이에게 분별이 일어난다면 공(空)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승의보리심(勝義菩提心: 수승한 법을 취해서 닦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해서 공을 이름붙인 것뿐이지 공 또한 실재하지 않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희론의 적멸’을 의미합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이 벗겨져 본래가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하는 의식 또한 적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심으로 설법하고 수행해야… 번뇌없는 마음은 보물

“이타심으로 중생 이익 구하고 중생 향한 대자비심 내라”

보리(菩提)란 성품이 없고 생함이 없으며 존재한 적이 없어 허공과 같습니다. 공성을 깨달은 승의의 보리심은 분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정수에 머무시는 부처님은 언제나 공이 허공과 닮았음을 아십니다. 붓다라는 말 속에도 ‘청정하다’ ‘그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의 근거가 모두 적멸한 상태입니다. 희론의 적멸이 바로 공성(空性)입니다. 이런 공성을 깨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대치합니다. 반야경에서 ‘제법이 무자성’이라는 궁극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선(善), 불선(不善)이란 분별의 흐름을 깨 것이 공입니다. 마음에 의식의 대상이 없는 머무름은 허공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배제돼야 합니다. 공의 사자후에 모든 실유론자(實有論者)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타력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과물이 발생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초전법륜 이후 부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체종지를 이루고, 이를 위해 승의보리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성은 제법의 법성입니다. 사탕의 달콤함과 불의 뜨거움과 같이 모든 법의 본성을 공으로 인정합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 보살계법회 3일째. 9월 15일부터 이어온 법회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걀사원에 함께한 3500여 내외국인 불자들이 합장하고 <반야심경>을 봉독 후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 이어졌다. 어떻게 진정한 보리심의 싹을 띄우고 가꿔야 궁극의 열반에 도달하는가? 지혜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티베트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보리심의 보리라는 말은 티베트어로 ‘장춥’입니다. ‘장’은 허물을 모두 정화해 청정한 상태입니다. ‘춥’은 대상을 모두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허물이 정화돼 깨끗해지는 근간은 ‘장’이 2가지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한 객진(客塵)을 대치법으로 청정해진 객진청정(客塵淸淨)의 관건은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은 궁극의 실상을 의미합니다.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번뇌에 휩쓸려 끊임없는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실상인 공성에 밝지 못하면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고, 궁극의 실상을 밝히면 윤회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은 계속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성청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진을 대치로 다스려서 객진청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공에 대한 지견을 거듭 거듭 사유한다면 열반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법이 자성청정(自性淸淨)인데 이것이 국한된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객진청정과 자성청정은 생명체에 국한된 의식을 지닌 존재에게 한정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 식(識)이라는 것은 대상을 요량하고 인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지한데 무명의 반대인 실상(實相)을 확연히 요달할 때 본래부터 우리가 자성광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수 보살의 저서 <법성계찬탄>에는 “윤회의 인(因)을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법신 또한 그것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업을 쌓고 윤회를 하게 됨을 말합니다. 윤회하게 하는 번뇌의 뿌리인 무명에 물든 의식 상태입니다. 그렇게 윤회의 바탕이 되는 의식 상태에서 허물이 대치법으로 정화되면 열반입니다. 실제를 바탕으로 하는 방편으로 보리심이 뒷받침 됐을 때 번뇌의 습기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유로서 용수 보살은 “불로 옷을 태워도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네. 마음의 객진을 대치법으로 청정히 해도 근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합니다. 마음의 허물들을 대치법으로 썼을 때 대상을 요량하고 광명의 자성을 가진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닌 또다른 특성은 물질적으로 바깥의 육체를 단련했을 때의 특징과 달리, 마음에 습(習)을 들였을 때 습이 견고해지고 무궁무진하게 증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실용신안특허의기술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